

글로벌 시황 야간 브리핑: 코스피 8,000선 회복과 글로벌 디커플링

거시적 대비(Macro Divergence) 속 자금 이동과 향후 전략적 함의

DATE: 2026.07.03 22:01 KST
REPORT TYPE: Overnight Market Briefing
STATUS: Finalized



[국내] KOSPI 8,000 탈환과 양극화

↗ 코스피 8,088.34 (+5.76%)
↗ 기관 +4조원(437만주) 순매수

역대 2위 변동폭을 기록하며
삼성전자·SK하이닉스 주도로 폭등.
단, 코스닥은 +0.19% 상승에 그치며
극단적 시장 양극화 노출.



[해외] 美 반도체 추락 vs 포 증시 반등

↗ 다우 52,900.07 (+1.14%) 최고치
↘ 나스닥 25,832.67 (-0.80%)

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둔 미 증시 혼조세.

한국과 달리 미국 반도체 주식은
매도 포지션이 강화되며 11%대 급락.



[전략] 'Everything Up' 역설과 모멘텀

↗ 금 \$500 돌파 (+18)
↗ 비트코인 \$67,350 (+1,240)

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동시 편입 지속.

다음 주 7/9 FOMC 회의록 및
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대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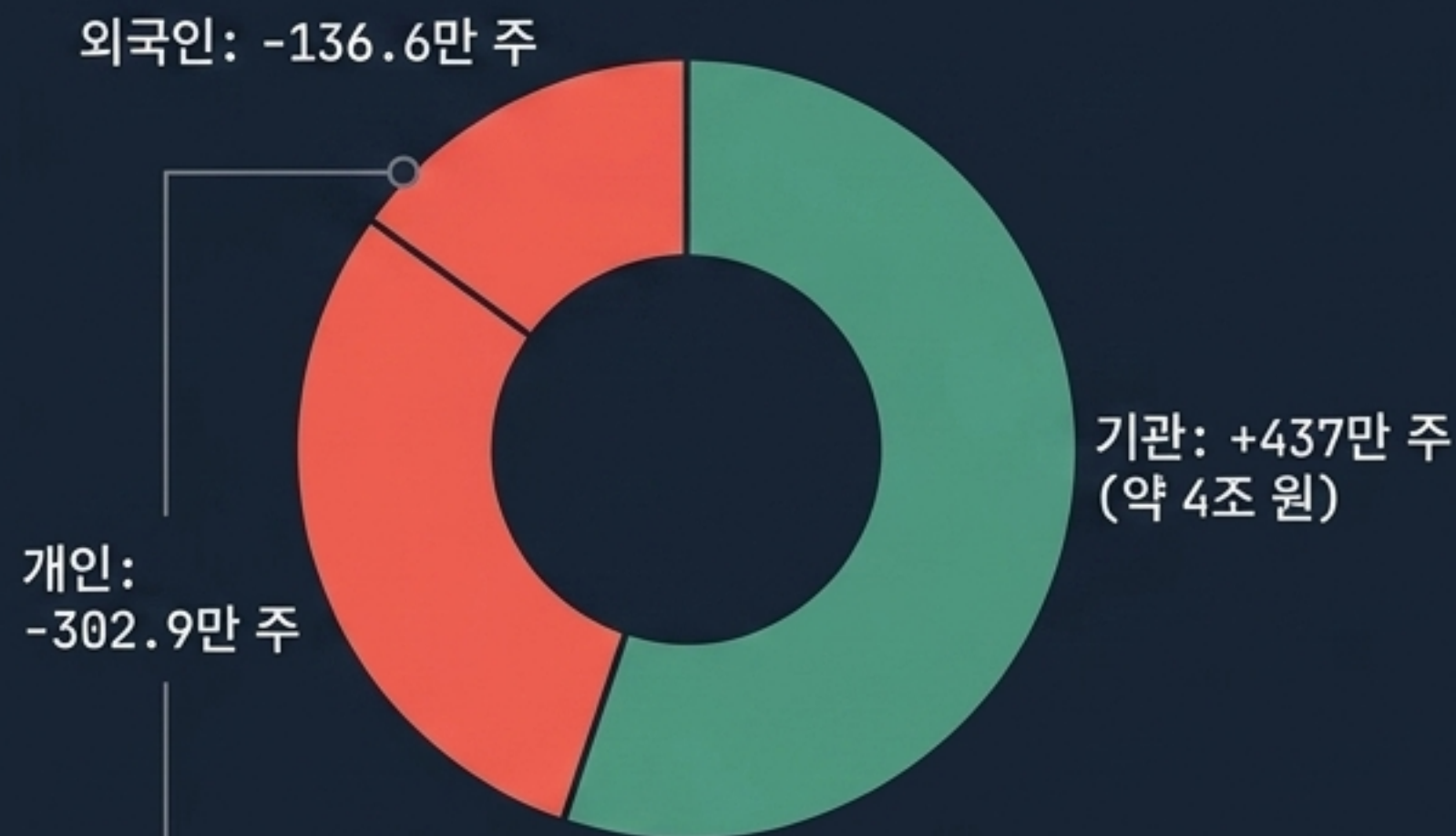
KOSPI 8,000선 회복: 기관의 4조 원 베팅과 역대 2위 변동폭

8,088.34

KOSPI (+440.25pt / +5.76%)

KOSDAQ: 868.41
(+1.69pt / +0.19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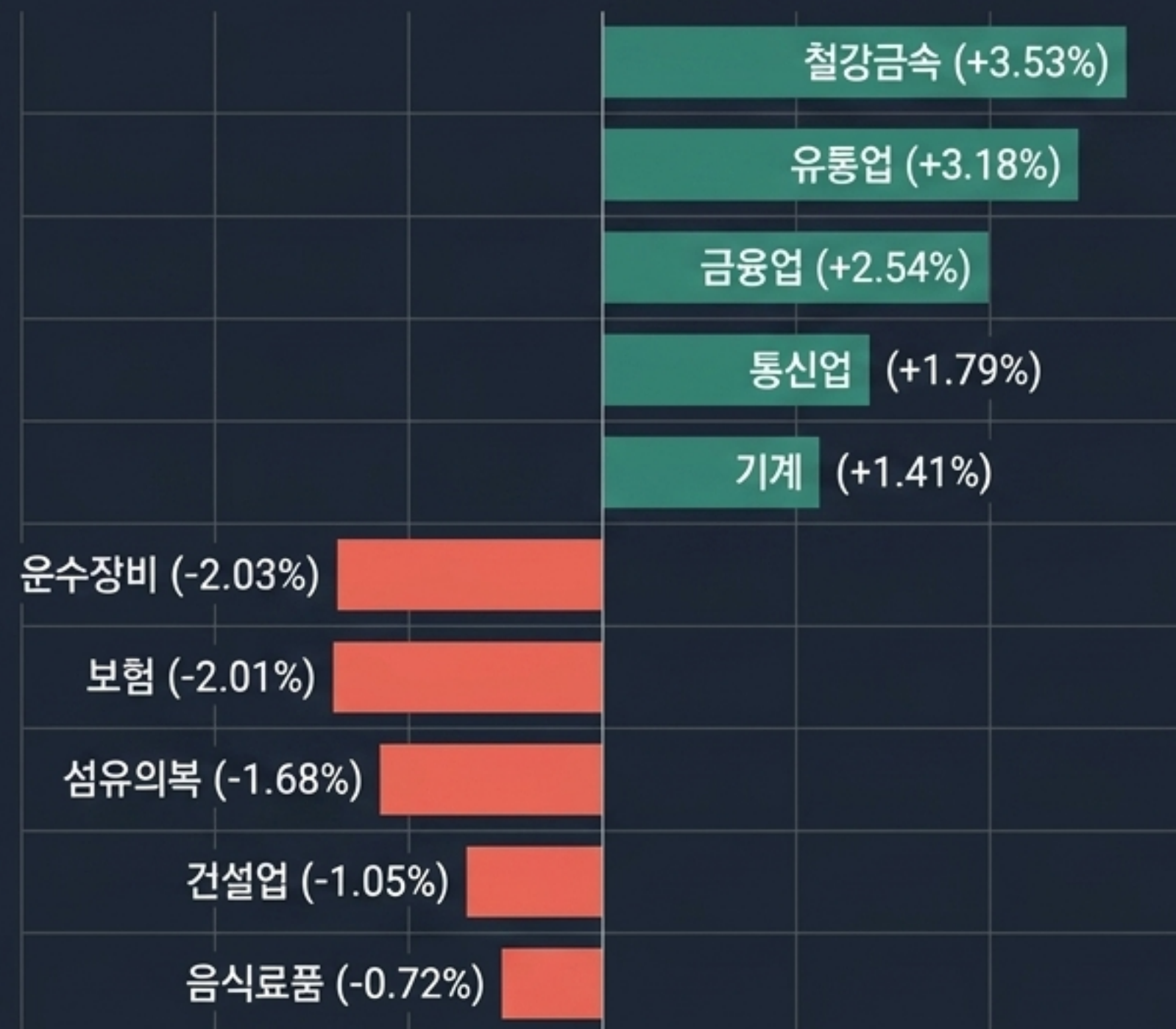
코스닥의 미미한 상승,
코스피 쏠림 현상의 반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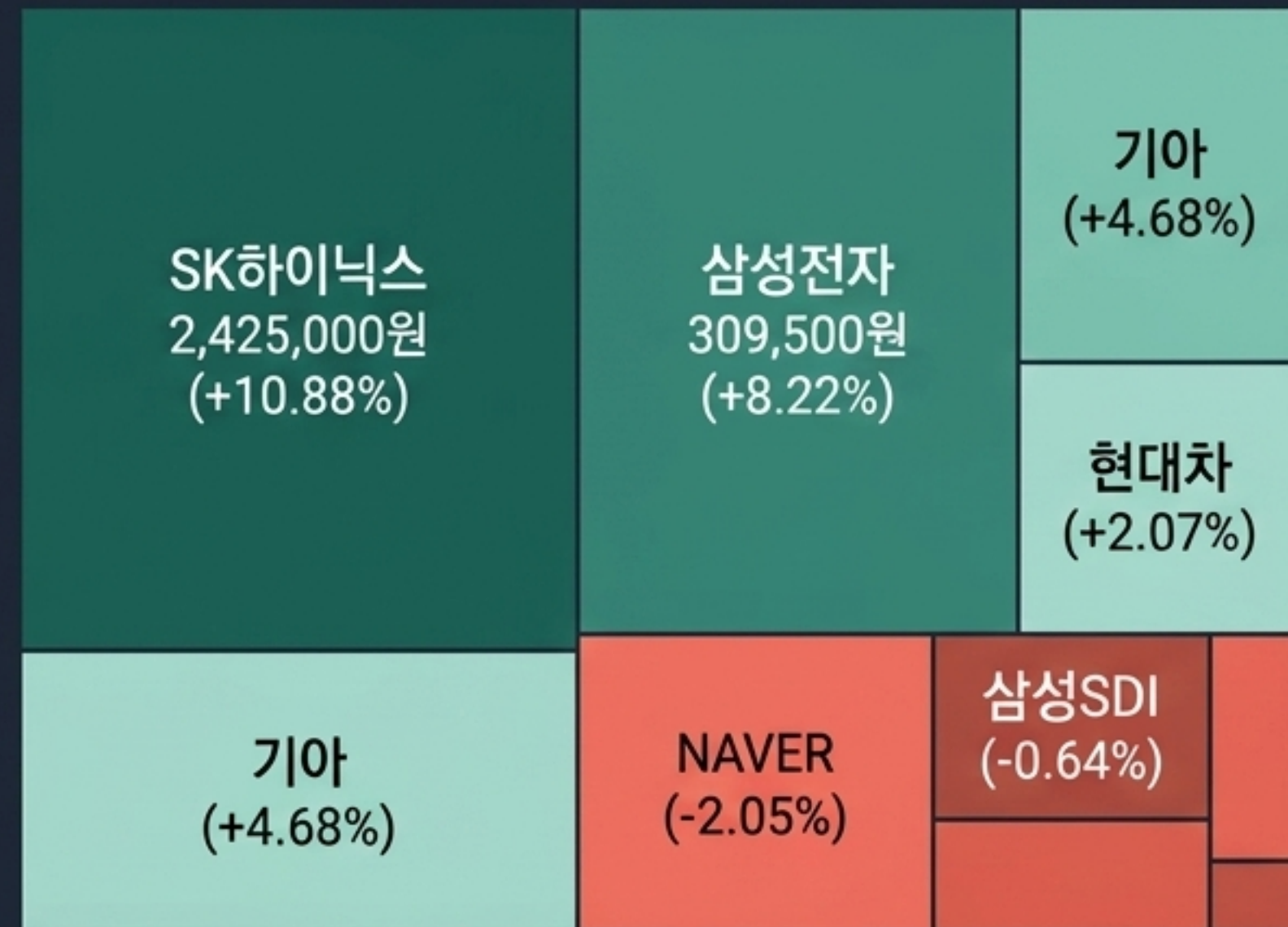
인사이트 요약: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급반등이 상승 동력이지만, 외국인 순매도 지속은 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위험(국부 유출 및 시장 양극화)을 시사함.

Sector & Stock Polarization: 철저하게 엇갈린 섹터별 명암

산업별 양극화



시장 하드캐리 종목 시총 비중



철강/금융/통신의 방어주 성격 강세와 반도체 대장주의 폭등이 결합된 기형적 상승 구조.

US Market Divergence: 다우 사상 최고치 이면의 기술주 약세

S&P 500

7,483.24

0.00% 보합

DOW JONES

52,900.07

+1.14% 사상 최고치

NASDAQ

25,832.67

-0.80% 반도체 급락

부동산
(+7.42%)

금융

원자재

에너지
(+2.00%)

산업

에너지
(+2.00%)

자유소비재

유틸리티
(-1.70%)

생활필수품
(-0.53%)

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휴장을 앞두고
관망세가 짙은 가운데, 반도체 섹터의 속절없는
추락이 나스닥의 하락을 주도.

The Semiconductor Decoupling: 한-미 반도체 정반대의 궤적

[KOR] 쏠림과 폭등 (Risk-On)



[USA] 투심 악화와 급락 (Risk-Off)



Synthesis: 동일 섹터, 상반된 자금 흐름.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의 방향성보다는 로컬 수급 이벤트와 매크로 타임라인에 얽힌 일시적 디커플링 현상.

Global Capital Flows: 아시아 증시 혼풍 속 자금의 이동



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증시(136.6만주 순매도)를 이탈하여, 수출주 강세가 뚜렷한 일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 중.

FICC Macro Signals: 외환·채권·원자재 동향

[Bonds & FX] 금리와 환율



미 국채 10Y: 4.537% (+5bp)

[매파적 기초]

원·달러: ₩1,445.00 (-5.30원)

[달러 약세 연동]

[Energy] 유가



WTI 원유: \$68.62 (+\$2.62)

[OPEC 감산 연장 기대]

국내 경유가 1,800원대 하락 진입
(물가 하방 압력 긍정적)

[Safe Haven] 금



금 (XAU): \$500 (+\$18)

이틀 연속 급등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

[Risk Asset] 비트코인



비트코인: \$67,350 (+\$1,240)

ETF 순유입 지속되며 위험자산 동반 강세

The 'Everything Up' Paradox: 안전과 위험의 동반 상승

Risk-On (공격적 배팅)

↑ 코스피 폭등 (+5.76%)

↑ 비트코인 (+\$1,240)

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및
쓸림 현상을 활용한
단기 수익 극대화 전략.



Safe Haven (리스크 헤지)

↑ 금 \$500 돌파 (+\$18)

↑ 기관 국채 편입 지속

지정학적 불확실성과
금리 방향성 모호함에 대비한
포트폴리오 방어선 구축.

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스마트 머니는 한 방향에 베팅하지 않는다.
공격적 위험 자산 편입과 동시에 헷지(Hedge)성 안전 자산 비중을
록인(Lock-in)하는 바벨 전략이 두드러짐.

Catalyst Timeline: 경기·금리 방향을 좌우할 주간 모멘텀

Super Thursday				
7/3	7/6 (월)	7/7	7/8 (수)	7/9 (목)
일본 가계지출	중국 CPI ★★★★ ISM 비제조업 & 서비스 PMI (23:00) 미국 경기 침체 여부 가늠자	독일 산업생산	영국 BRC 소매판매 ★★★★ 원유재고 (23:30)	★★★★ FOMC 회의록 공개 (03:00) ▼ ★★★★ 신규/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 (21:30) ▼ ★★★★ SK하이닉스 26년 2분기 실적 발표 국내 반도체 헬리 지속 여부의 분수령

단순 일정이 아닌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트리거.

Strategic Action Items: 최종 전략 제언



Action 1: 국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

- 전략: 반도체 위주 쏠림 현상 주의 및 외국인 수급 변곡점 확인.
- 근거: 코스피 폭등 이면의 외국인 매도세와 코스닥 소외 현상은 랠리의 단기 피로도를 암시함. 저평가 제약·바이오 섹터로의 순환매 대비 필요.



Action 2: 매크로 헤지 비중 확대

- 전략: 금·달러 중심의 헤지 포지션 록인(Lock-in).
- 근거: 금 \$500 돌파 흐름에 편승하여, 금리 동결 및 미국 대선/관세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.



Action 3: 단기 변동성(Super Thursday) 대비

- 전략: 7/9 (목) 전후의 이벤트 리스크 헷징.
- 근거: 7/6 ISM 지표부터 7/9 FOMC 회의록 및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겹쳐 있어, 해당 일정 전후로 레버리지 비중 축소 권고.